멸망유행도 따르는 세상 소속감

(시편 129:1~8)

1.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4.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5.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멸망유행도 따르는 세상 소속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멸망유행도 따르는 세상 소속감'
세상 소속감을 얻기 위하여 멸망으로 끝이 나는 유행도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동화작가로 유명한 그림(Grimm) 형제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멜른이라는 마을에서 1200년대에 130명의 어린이가 일시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쓴 동화가 바로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하멜른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에 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과 방은 물론이고 아기가 있는 방에까지 들어옵니다. 부엌에 들어와서 음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하멜른의 주민들과 시장은 이 쥐들로 인해 괴로워하는 가운데 쥐떼를 해결해줄 사람을 찾으며 포상금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냥꾼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는 커다란 붉은색 모자를 쓴 사나이가 나타나 쥐떼를 없애주겠노라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이 제안을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일단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쥐들을 홀려서 마을에 있는 배저 강에 빠뜨려 죽입니다. 주민들은 쥐들이 사라지자 너무나 기뻤지만 시장은 포상금이 아까워서 사나이에게 주기로 했던 포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사나이가 다시 찾아와서 피리를 불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에 남아있던 어린이들이 다 나와 사나이를 따라서 언덕너머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이라고는 귀가 들리지 않거나 걷지 못하거나 늦잠을 자던 아이들뿐이었습니다. 경악한 마을 사람들이 포상금을 주지 않았던 시장을 내쫓고 사나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이미 때는 늦어 아이들을 다시

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이지만 우리는 이 동화에서 남게 된 아이들의 특징을 한 번 살펴봅니다. 이 아이들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다리가 불편했고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음이 생명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큰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에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이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은 생깁니다. 큰 기쁨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의 땅 바깥에서 기쁨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인류에게는 유행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차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 밖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거리를 찾으려고 하니 남들의 행동에 민감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외치자 모든 사람들도 그 방식을 따라합니다. 기쁨거리를 찾는 방식에 유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돈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유행이 생겼고, 또 건강과 장수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유행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五福)은 진리도 아니며 영원한 법칙도 아니며 일시적인 유행임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 속에서 거의 같은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유행은 본래 짧은 것인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길게 유행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흡입구를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동안에 기쁨거리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의 대상이 유행했습니다. 그것들이 재물이고 장수이고 관직이나 명예 등입니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세상에 기쁨거리의 다른 대안이 존재하질 않았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이 유행이 길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옷이나 명품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쁨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유행하는 옷을 삽니다. 요새는 롱패딩이 유행하니 그걸 하나 사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기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는 방식입니다. 명품이 유행하는 이유도 그것을 가져야만 기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행에는 이 기쁨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심리 상태가 작용하는데 바로 소속감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은 곧 세상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안정감을 찾으려는 심리입니다. 이 세상에 소속된 자로서의 기쁨을 얻으려고 함입니다. 이렇듯 소속감과 유행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유행을 따르기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기쁨과 소속감을 얻기 위함입니다. 남들과 같아짐을 통해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이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 소속감을 가질 때에 기쁨도 생겨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유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나님 외에는 기쁨거리가 없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뿐이셨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따르는 유행, 건강과 장수를 따르는 유행, 승진을 따르는 유행, 자녀의 형통을 따르는 유행 등을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은 결코 진리나 법칙도 아닌 미신에 불과한 유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귀환 이후의 역사적 배경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선민들은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향에서는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심신이 지치고 피로한 가운데 이 시는 지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는 방법을 시온에서 찾습니다.
5절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과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은 선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민족적 감정에 의한 증오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

에 대한 호불호는 선민과 이방인 혹은 참 선민과 가짜 선민을 가리는 기준인 것입니다. 시온은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에 대한 호불호는 곧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호불호입니다.

성전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죄 사함의 기능이 있고 죄 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번제물인 어린양을 죽일 때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므로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하여 나를 죽이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쫓겨난 죄악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 즉 유전죄에 장악된 내가 죽는다는 고백을 함으로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찾지 않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거리로 모셔드리는 역할을 성전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죄 사함의 기능이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기능도 성전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죄 사함의 기능과 죄 억제의 기능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민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소속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행이란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돈으로 기쁨을 찾겠다는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자녀의 형통 등으로 인해 기쁨을 찾겠다는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성전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유행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세상에 대해 소속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바깥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에 성전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돈 벌어 기쁠 생각을 중단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건강과 장수로 기뻐함을 중단하는 것이고, 자녀의 형통으로 기뻐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늘에서 생긴 기쁨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소속감에 충실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자녀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을 벌어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소속감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정해져있습니다. 어떤 카드는 전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소속감을 쓰지 않는 신용카드처럼 방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 소속감을 활용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소속감을 얻기 위해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은 소속임을 인정해주길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그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넥타이 유행이 지나고 좁은 넥타이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따라서 좁은 넥타이를 매야 마음이 기쁩니다. 짧은 치마가 유행하면 기쁘기 위해 짧은 치마를 따라 입습니다. 독일 차가 유행하면 나도 그 차를 사야만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기쁜 것도 유행입니다. 이렇게 유행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전과 십자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섞일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사람의 삶으로 의인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민족형성 과정으로부터 포로귀환까지를 한 사람의 인생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모두 세상 소속감의 강박증을 가지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요 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늘에 있었기에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것이 죄악이기에 그 죄악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늘의 소속감을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 소속감이 충실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소속감의 강박증을 느끼게 하는 유전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박증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쁠 것 같고, 건강하고 장수해야 행복할 것 같고, 자녀들이 형통해야만 행복 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러한 생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는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입니다.
우리는 그 유행을 따라가려는 세상 소속감 강박증에 걸린 나를 십자가에서 계속 죽이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실 때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방식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라는 말은 곧 세상의 유행을 따르자는 권유입니다. 세상의 유행 따르기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고 남들보다 앞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소속감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교인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실패한 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얼굴이 시무룩한 사람에게 교회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기쁨과 만족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업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에 그렇게 된 것임을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사업이 망했대!'라며 두 번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소속감을 잃고 자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생겨난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소속감의 선봉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첨단이 되어서 온갖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수천억을 들여야 만족하고, 재정이 늘어야 목사의 능력이 인정받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영성을 지니고 있느냐는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관심은 재정이고, 그 재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목사야 말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연예인들처럼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자녀의 형통이나 승진 혹은 명품 외제차 등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기쁨을 이 세상을 향해 표현하며 사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죄가 주는 세상 소속감에 대한 강박증에 의해서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얼른 십자가를 기억해내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먼저 보면서 돈을 마음에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세상 소속이 되는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멸망으로 끝이 나는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소속감에 충실하기 위해 십자가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망으로 끝날 유행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소속되기를 원했던 세상으로부터도 결국 버림받는 비참한 생애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과 힘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